

2018년 12월 14일, 제주시 오라동 김춘숙 씨 댁, 이효순 조사.

김춘숙(여, 1954년생, 제주시 오라동)

- 제주시 이호동에서 태어났으며, 결혼 후 연동, 노형동에서 살다가 현재는 오라동에서 10여 년째 거주 중이다.

• 줄거리: 오백장군이 먹일 죽을 쑤다가 설문대할망은 솔에 빠져 죽었다. 아들들이 차례로 죽을 떠서 먹다가 막내가 죽을 뜨려고 보니 어머니 뼈가 있어서 막내아들이 밖으로 달려나갔다. 그는 수월봉 아래에 큰 바위인 장군봉이 되었고 다른 아들들은 한라산의 오백장군이 되었다.

[제보자] 아니 그러니까 제주도 만든 사람이 설문대할망이잖아. 일단은 전설에 의하면 설문대할망이 얼마나 커인고 허민, 한라산에 머리를 베고 다리 하나는 우도, 다리 하나는 관탈. 이렇게 할 정도로 큰 할망이다.

근디 그 할망신다는 아들이 오백 명 셋덴. 오백 명 잇인디 그 아들들을 다 멱영 살려야 되잖아. 근데 어느 해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엊어. 그러니까 이제는 설문대할망이 아들들신디 다 풀어놔.

“너네 강 아무거라도 잡양 오라. 오백 명 아들 잇어그네 흉년이 들엉 너네가 아무 거라도 먹을 거 허영 와라. 허영 와야 먹고 살 거 아니냐?”

아들 오백 명을 허영 설문대할망은 이디 강 먹을 야채 가마솟이 어마어마허게 크주게. 혈 게 엇엉 허당 보난 오꼿허게 어멍이 가마솟디 빠져 불언게. 빠정 보난 왕 보난 빠정 죽을 쑨 거라. 아들들 살리젘. 아들들은 왕 큰성도

“아이고, 맛 좋다. 맛 좋다. 무슨 죽이고? 맛 좋다.”

먹고 다들 먹은디. 막둥이는 죽 뜨젘 보난 어멍 뼈가 잇인 거라. 어멍 꽂이 잇이난

“아이고, 성 이거 무슨 일이라.”

우리 어멍 이제 죽 쑤엉 먹어젖덴 허영 부에낭 들으멍 들으멍 간 게 수월봉 아래 차귀도 아래 큰 바위 됧덴 허매. 족은아들은 큰 바위 웨불고 성들도 그때사

느경

“아이고, 우리가 잘못햇구나.”

허영, 오백장군 그 아들들이 된 거렌 헨게.

[조사자] 그던 사백아흔아홉 개예?

[제보자] 봉 하나는 차귀도 앞에 장군봉.

[조사자] 그건 막동이예?

[제보자] 그런 얘기도 잊고.

설문대할망도 얘긴 여러 가지라. 족두리바위도 잊고 무신 오름 만든 얘기.

제주도 오름이 다 설문대할망 취미로 흑 나르당 털어진 게 오름이렌 헤낫거든.

옛날에는 게난 그것도 간추리질 못해 부니까 들은 부분 부분마다 다 또 사람
마다도 틀리고.

- 핵심어: 설문대할망, 오백장군, 죽, 막동이, 장군봉, 꽹(뼈), 수월봉, 차귀도, 족두리바위, 가마솥(가마솥), 족은아들(작은아들), 한라산, 큰성(큰형), 오름